

대학신입생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

강문희¹, 김선희^{2*}, 오은진³

¹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²조선간호대학교 교수, ³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Suicide Risk of University Freshmen

Moon-Hee Gang¹, Seon-Hee Kim^{2*}, Eun-jin Oh³

¹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²Professor, Chosun Nursing College

³Doctoral Cours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신입생의 ADHD, 우울, 불안 및 자살위험성 파악과 자살위험성 관련 융합적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대학신입생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자살위험성과 ADHD, 우울 및 불안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살위험성과 ADHD($r=-.411$)의 상관관계는 중간정도의 음의 상관관계, 우울($r=-.594$) 과 불안($r=-.563$)은 각각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대학신입생의 자살위험성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ADHD, 우울, 불안으로 각 변수들의 abnormal 군에서 ADHD(OR=3.17; 95% CI 1.36-7.38), 우울(OR=10.80; 95% CI 4.32-27.02), 불안(OR=3.39; 95% CI 1.55-7.41)이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대학신입생의 자살위험군은 ADHD, 우울, 불안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대학신입생의 개인상담 및 정기적인 심리검사 실시하여 자살 고위험군에게 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융합, 대학신입생, 자살위험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우울, 불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s between ADHD, depression, anxiety, suicide risk and suicide risk of university freshmen, and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suicide risk of university freshmen. As a result, the correlation between suicide risk and ADHD, depression, and anxiet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correlation between suicide risk and ADHD ($r=-.411$) was moderately negative, while depression ($r=-.594$) and anxiety ($r=-.563$) were high negative correlations. According to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suicide risk of college freshmen were ADHD, depression, and anxiety. In the abnormal group of variables, ADHD (OR=3.17; 95% CI 1.36-7.38), depression (OR=10.80; 95% CI 4.32-27.02) and anxiety (OR=3.39; 95% CI 1.55-7.41) were identified as influencing factors. As such, suicide risk groups of college freshmen are highly associated with ADHD, depression, and anxiety. Therefore, personal counseling and regular psychological tests of college freshmen will be provided to the high-risk suicide program to help students' psychological stability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Key Words : Convergence, University freshmen, Risk of suicide, ADHD, Depression, Anxiety

*Corresponding Author : Seon-Hee Kim(sunny_kim@naver.com)

Received August 19, 2019

Accepted November 20, 2019

Revised October 14, 2019

Published November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6년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대학 신입생들 15.36%가 자살충동을 경험하고, 이들 중 36.28%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여 자살 위험성이 높다[1].

대학 신입생은 청소년기 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혼란스러운 시기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2]. 대학 신입생은 정서적 취약성이 낮아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상황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충동적인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한다[3]. 대학생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 중 특히 우울은 대학생의 자살 유발 요소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메타분석을 통해 나타나[4], 우울은 자살위험성의 중요한 지표중 하나이다.

대학생의 우울 관련 요인으로 자신의 신체적인 열등감이 크거나, 신체적 건강 및 기능 상실이 있을 때[5], 경제적 상태와 가족, 동료 등 사회적 지지가 낮거나, 낮은 자존감[6,7], 취업스트레스[8],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의 적응과 대인관계의 어려움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9]. 대학신입생은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느끼고 이는 곧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10].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갖게 하는 다양한 요인 중 ADHD를 들 수 있다[11]. 성인 ADHD환자의 70% 이상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1개 이상의 공존질환을 경험하고[1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ADHD와 우울이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다[13]. 또한 성인 ADHD의 주요한 증상인 부주의와 충동성 같은 정서조절 곤란은 대학생 ADHD의 경우 학업 수행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학에 적응하는 수준이 낮고[14], 대학 적응의 어려움은 낮은 자존감, 삶의 질 저하, 우울이 나타나고 더욱더 일상생활 적응에의 어려움을 초래한다[13-15].

대학 신입생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심리요인으로 불안을 들 수 있다[16]. 친구들과 교수와의 새로운 대인관계와 낯선 대학환경, 등록금과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안감을 야기시키고[17], 여러 요인들로 인한 불안은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8], 이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극복하지 못했을 때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10]. 2018년 2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심리건강조사에서 응답자의 75.4%가 불안, 43.2%가

우울, 14.3%는 자살위기로 보고하며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은 2.4% 대학생의 정신건강의 심각성이 보고되고 있다[19]. 이와 관련하여 자살위험성의 관련요인들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국내연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위험성에 대한 연구로는 우울[9], 생활스트레스[9], 취업스트레스[8], 자존감과 사회적지지[6,7]와 관련되고, 대학신입생의 우울 유발요인들에 대해 대학신입생들의 대학생활에서의 부적응과 학업, 대인관계, 취업준비로 연구되고 있다[9].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대학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불안, 심리적 압박감이 우울을 나타나게 하고 우울은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 되었다. 하지만 우울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인 ADHD와 불안이 자살 위험성에 관련된 요인으로 또 우울과 함께 자살 위험성의 관련성을 보는 다각적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우리나라 대학신입생들은 부모의 통제와 과도한 입시경쟁의 시기를 겪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게 되고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 부적응은 문제해결에 극복 어려움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어 우울을 경험하기 쉽고, 대학 신입생의 우울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자살 위험성도 높인다. 대학신입생은 성인기로 넘어가서 사회에 나아가기위한 과정에 놓여있다. 따라서 대학신입생의 자살위험성은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ADHD, 우울 및 불안에 따른 자살위험성을 파악하고 자살위험성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신입생의 ADHD, 우울, 불안 및 자살위험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자살위험성의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DHD, 우울, 불안 및 자살위험성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ADHD, 우울, 불안, 자살위험성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ADHD, 우울, 불안 및 자살위험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대상자의 자살위험성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대학신입생의 ADHD, 우울, 불안 및 자살위험성을 파악하고, 자살위험성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로 2019년 C 지역 1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대학생 마음건강실태 자료 중 일부를 이용한 2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C 지역의 대학 신입생이다.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 양측검정, 유의수준=.05, odds ratio=1.5, α =0.2, power=.80일 때, 308명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분석에는 2019년 C 지역 1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대학생 마음건강실태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총 341명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전공학과,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정신과 병력, 신체적 병력, 음주문제를 포함하였다. 또한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등이 서로 연속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연구[20]와 아주 경미한 자살생각이라도 장차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되거나 자살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21]는 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를 이어지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 모든 차원을 자살행동으로 보고자 하여 이를 경험한 대상자를 '자살위험군', 경험한 적이 없는 대상자를 '정상군'으로 나누어 자살위험성의 자료로 측정하였다.

2.3.2 한국형 성인 ADHD 척도

대학생의 ADHD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Murphy와 Barkely[22]가 개발하고, 김은정[23]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DSM-IV의 ADHD 증상 18개를 자기보고형으로 평정하도록 개발되었다. 각 문항은 지난 6개월 동안 적힌 행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를 0-4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ADHD 성향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95 이었다.

2.3.3 우울

PHQ-9는 간단하게 우울증을 선별하고, 우울증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기보고형 검

사이다[24]. DSM-IV의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2주동안 얼마나 이러한 문제를 자주 겪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이다. 0-4점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의 범위는 0~27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90 이었다.

2.3.4 불안

범불안장애의 선별과 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검사로[25],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범불안장애를 변별한다는 장점이 있어 외국의 일차의료기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Seo & Park[26]이 번안하여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3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90 이었다.

2.4 자료수집

C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2019년 대학생의 마음건강조사결과를 이용하였다. 센터는 사전에 해당 대학의 기관장과 상담센터의 협조를 구한 후 2019년 5월 10일부터 30일 까지 각 학과별 오리엔테이션기간에 센터의 직원이 설문조사의 목적과 방법 및 자발적 참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설문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직접 수거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정신건강복지 센터 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 수집된 자료를 파일로 받아 분석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ADHD, 우울, 불안 및 자살위험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파악하였고, 이를 점수화 하여 normal군과 abnormal(mild, moderate, severe)군으로 분류하였다. 자살위험군과 정상군 간의 일반적 특성과 ADHD와 우울의 차이는 t-test 또는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heffé로 분석하였다. ADHD, 우울 불안 및 자살위험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계수로,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에서의 유의수준은 $p<.05$ 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65.7%로 더 많았고, 연령은 10대가 70.4%, 20대가 25.2% 순으로 많았다. 정공학과는 사회복지학과가 16.7%, 자동차공학과가 14.7% 순으로 많았다. 현재 거주 중인 사람은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사람이 5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 같은 학생인 룸메이트와 거주 중인 사람이 36.4%로 많았다. 정신과 병력이 있는 사람은 5.3%, 신체적 병력이 있는 사람은 15.5%, 음주문제가 있는 사람은 4.4%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20.5%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ADHD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중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면 남자 12.21±11.83점, 여자는 15.76±12.29점으로 통계적으로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59, p=.010$). 전공학과에 따른 ADHD는 컴퓨터 드론학도가 16.97±13.5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집단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회복지학과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91, p=.049$). 정신과병력 유무에 따른 ADHD는 그렇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19.33±14.70점, 아니오 라고 응답한 학생이 13.10±11.87점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4, p=.033$). 신체적병력 유무에 따른 ADHD는 그렇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17.38±12.94점, 아니오 라고 응답한 학생이 12.70±11.81점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61, p=.010$). 자살위험성 유무에 따른 ADHD는 그렇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25.60±11.64점, 아니오 라고 응답한 학생이 10.29±10.05점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0.08, p<.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Table 1. General and Suicide Risk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ADHD, Depression and Anxiety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N=34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DHD		Depression		Anxiety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117(34.3)	12.21±11.83	2.59 (.010)	3.65±4.92	2.04 (.042)	2.40±3.77	2.07 (.039)
	Female	224(65.7)	15.76±12.29		4.79±4.84		3.29±3.79	
Age	10's	240(70.4)	13.70±12.40	0.27 (.899)	3.95±4.56	0.32 (.866)	2.71±3.68	0.50 (.735)
	20's	86(25.2)	13.02±11.91		4.44±6.01		2.90±4.31	
	30's	1(0.3)	18.00±0.00		4.0±0.00		3.00±0.00	
	40's	1(0.3)	6.00±0.00		5.0±0.00		2.00±0.00	
	Over 50 years old	13(3.8)	11.46±7.74		3.0±3.49		1.31±2.18	
Major course [†]	Engineering Automotive ^a	50(14.7)	11.46±10.60	1.91 (.049) d<i	2.66±3.24	1.90 (.051)	1.66±2.47	2.71 (.005) f>h
	Bio Life Medicine ^b	22(6.5)	14.68±12.96		3.45±3.74		1.73±2.10	
	Semiconductor Electronics ^c	26(7.6)	9.73±10.72		2.58±3.92		2.12±3.22	
	Social welfare ^d	57(16.7)	16.23±11.05		4.86±5.23		3.46±4.23	
	Firefighting administration ^e	31(9.1)	13.58±11.94		4.13±5.06		3.61±4.13	
	Convergence Design ^f	23(6.7)	14.65±14.53		6.30±6.76		4.87±6.06	
	Electricity ^g	35(10.3)	9.03±10.06		3.20±4.48		1.63±2.70	
	Cooking Baking ^h	27(7.9)	15.78±13.78		5.56±5.37		3.85±4.44	
	Computer Drone ⁱ	36(10.6)	16.97±13.52		4.00±4.48		2.42±3.64	
	Environment Department ⁱ	34(10.0)	11.62±12.05		4.26±5.98		2.26±3.35	
House mate	Family	187(54.8)	13.21±12.38	0.16 (.926)	4.08±4.98	0.03 (.994)	2.75±3.65	0.61 (.607)
	Roomate	124(36.4)	13.97±11.74		4.07±4.60		2.65±3.99	
	alone	22(6.5)	11.00±11.22		3.36±6.39		2.59±4.41	
	etc.	8(2.3)	16.88±13.73		4.38±4.34		2.63±2.92	
Psychiatric history	Yes	18(5.3)	19.33±14.70	2.14 (.033)	6.61±7.59	1.50 (.151)	4.56±5.62	1.46 (.162)
	No	323(94.7)	13.10±11.87		3.89±4.70		2.60±3.65	
Physical history	Yes	53(15.5)	17.38±12.94	2.61 (.010)	4.57±5.68	0.85 (.396)	3.49±4.73	1.65 (.101)
	No	288(84.5)	12.70±11.81		3.94±4.77		2.56±3.59	
Drinking problem	Yes	15(4.4)	16.73±14.00	1.08 (.280)	6.20±7.00	1.75 (.082)	3.87±5.44	0.86 (.405)
	No	326(95.6)	13.28±12.00		3.94±4.79		2.65±3.71	
Suicide Risk [*]	Yes	70(20.5)	25.60±11.64	10.08 (<.001)	10.56±5.54	11.95 (<.001)	7.30±4.80	9.79 (<.001)
	No	271(79.5)	10.29±10.05		2.35±2.95		1.52±2.32	

^{*}Suicide Risk: suicidal thoughts or attempts ; [†]Scheffé test

같다. 이 중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면 남자 3.65±4.92점, 여자는 4.79±4.8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4, p=.042$). 자살위험성 유무에 따른 우울은 그렇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10.56±5.54 점, 아니오 라고 응답한 학생이 2.35±2.95점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1.95, p<.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중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면 남자 2.40±3.77점, 여자는 3.29±3.7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7, p=.039$). 전공학과에 따른 불안은 융합디자인학도가 4.87±6.06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집단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제과제빵학과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71, p=.005$). 자살위험성 유무에 따른 불안은 그렇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7.30±4.80점, 아니오 라고 응답한 학생이 1.52±2.32점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9.79, p<.001$).

3.2 자살위험군과 정상군 간의 일반적 특성, ADHD, 우울 및 불안의 차이

자살위험군과 정상군 간의 일반적 특성, ADHD, 우울 및 불안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자살행동을 경험한 사람을 ‘자살위험군’으로 보았을 때, 자살위험군은 정신과병력이 없는 대상자가 18.5%로 정신과병력이 있는 대상자 2.1%보다 많았고($\chi^2=3.93, p=.048$), ADHD증상에서 abnormal이 17.6%로 normal 2.9%보다 많았다($\chi^2=57.58, p<.001$). 자살위험군에서 우울은 abnormal이 18.2%로 normal 2.3%보다 많았고($\chi^2=159.03, p<.001$), 불안은 abnormal 14.7%로 normal 5.9%보다 많았다($\chi^2=119.96, p<.001$).

Table 2.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ADHD, Depression and Anxiety Between Suicide Risk Groups and Normal Groups (N=341)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icide Risk		χ^2 (p)
		Yes (n=70)	No (n=271)	
Gender	Male	27(7.9)	90(26.4)	0.71 (.400)
	Female	43(12.6)	181(53.1)	
Age	10's	51(15.0)	189(55.4)	4.08 (.395)
	20's	19(5.6)	67(19.6)	
	30's	0(0.0)	1(0.3)	
	40's	0(0.0)	1(0.3)	
	Over 50 years old	0(0.0)	13(3.8)	
Major course	Engineering Automotive	5(1.5)	45(13.2)	12.33 (.195)
	Bio Life Medicine	4(1.2)	18(5.3)	
	Semiconductor Electronics	4(1.2)	22(6.5)	
	Social welfare	13(3.8)	44(12.9)	
	Firefighting administration	5(1.5)	26(7.6)	
	Convergence Design	9(2.6)	14(4.1)	
	Electricity	5(1.5)	30(8.8)	
	Cooking Baking	8(2.3)	19(5.6)	
	Computer Drone	8(2.3)	28(8.2)	
Environment Department	9(2.6)	25(7.3)		
House mate	Family	38(11.1)	149(43.7)	2.07 (.557)
	Roomate	26(7.6)	98(28.7)	
	alone	3(0.9)	19(5.6)	
	etc.	3(0.9)	5(1.5)	
Psychiatric history	Yes	7(2.1)	11(3.2)	3.93 (.048)
No	63(18.5)	260(76.2)		
Physical history	Yes	12(3.5)	41(12.0)	0.17 (.678)
No	58(17.0)	230(67.4)		
Drinking problem	Yes	6(1.8)	9(2.6)	3.65 (.056)
No	64(18.8)	262(76.8)		
ADHD	Normal	10(2.9)	176(51.6)	57.58 (<.001)
	Abnormal	60(17.6)	95(27.9)	
Depression	Normal	8(2.3)	219(64.2)	159.03 (<.001)
	Abnormal	62(18.2)	52(15.2)	
Anxiety	Normal	20(5.9)	239(70.1)	119.96 (<.001)
	Abnormal	50(14.7)	32(9.4)	

3.3 대상자의 자살위험성과 ADHD, 우울 및 불안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살위험성과 ADHD, 우울 및 불안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조사된 변수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자살위험성과 ADHD($r=-.411$)의 상관관계는 중간정도의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 되었고, 우울($r=-.594$) 과 불안($r=-.563$)은 각각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341)

Variables	Suicide Risk r(p)
ADHD	-.411**
Depression	-.594**
Anxiety	-.563**

** $p<.001$

3.4 대상자의 자살위험성 관련 요인

대상자의 자살위험성 관련 요인은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자살 위험군과 정상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와 일반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정신과병력 유무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chi^2=142.13$, $p<.001$), 또한 Nagelkerke 결정 계수를 통해 모델의 설명력은 53.4% 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성은 Hosme-Lemeshow 검정 결과 이 모형의 관측값과 예측값에 차이가 없다는 가설이 기각되지 않아($\chi^2=4.43$,

$p=.219$), 제시된 모형은 자료에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대학신입생의 자살위험성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ADHD, 우울, 불안으로 각 변수들의 abnormal 군에서 ADHD(OR=3.17; 95% CI 1.36-7.38), 우울(OR=10.80; 95% CI 4.32-27.02), 불안(OR=3.39; 95% CI 1.55-7.41)이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2019년 C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대학생의 마음건강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대학신입생의 ADHD, 우울 및 자살 위험성을 파악하고, 자살 위험성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신입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중재전략 및 자료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신입생 중 자살위험성이 있는 학생이 20.5% 이며, 이는 ADHD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인ADHD 환자들이 삶의 부정적 사건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스트레스 대처에 미숙하기 때문에 성인 ADHD증상 자체가 자살과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7]. 또한, 선행연구에서 성인 ADHD 환자들은 다양한 기분 장애를 호소하며,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나타났다 [12].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신입생들의 ADHD 증상이 심할수록 스트레스 대처에 미숙하여 자살 사고 및 자살시도의 노출이 많고 나아가 취업 후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신입생의 자살위험성은 우울과 통계

Table 4. Related Factors on Suicide Risk

(N=341)

Variables		Suicide Risk					
		B	SE	Wald	OR	95% CI	p
		Cox & Snell R ²				.341	
		Nagelkerke R ²				.534	
ADHD	Normal						
	Abnormal	1.152	.432	7.118	3.17	1.36-7.38*	.008
Depression	Normal						
	Abnormal	2.380	.468	25.884	10.80	4.32-27.02*	<.001
Anxiety	Normal						
	Abnormal	1.219	.399	9.314	3.39	1.55-7.41*	.002
Psychiatric history	Yes						
	No	-.397	.700	.322	0.67	0.17-2.65	.570

* $p<.05$

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감이 높을수록 자살위험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서 정신과병력이 있는 대상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정신과 환자군이 건강 대조군에 비하여 우울 및 스트레스 대처 전략이 부족하고 자살 사고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8]와 유사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정리 해보면, 대학신입생의 우울증상 및 다른 정신과병력이 스트레스 대처에 미숙하게 되며 자살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자살위험성과 불안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의 취업으로 인한 불안이 자살 충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9]와 유사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대학신입생의 ADHD 증상이 자살위험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결과도 군인을 대상으로 자살사고와 ADHD, 우울, 불안, 자존감, 충동성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자살위험군이 정서문제인 우울뿐만 아니라 ADHD 증상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29]와 유사한 결과이다.

대학신입생의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대학신입생의 ADHD, 우울, 불안 여부가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군인을 대상으로 자살사고와 ADHD, 우울, 불안, 자존감, 충동성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29]에서 ADHD 증상과 자살사고가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우울 변수에서 normal 군보다 abnormal 군에서 자살위험성 확률이 10.8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이 자살위험성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9]와 유사하며, 우울로 인해 자살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다른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19,29,30]. 불안 변수에서도 normal 군보다 abnormal 군에서 자살위험성 확률이 3.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불안이 자살위험성과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29,30].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대학신입생의 마음건강실태자료 중 일부를 활용하여 조사한 2차 분석 연구라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대학신입생의 자살위험성 유무와 ADHD, 우울, 불안의 차이에 대해 파악하고 자살위험성 영향요인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주로 건강한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 그룹이 포함되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대학신입생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ADHD, 우울, 불안으로 확인되었고, 자살위험군은 정신과병력 유무, ADHD 증상 유무, 우울 및 불안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대학신입생의 개인상담 및 정기적인 심리검사 실시하여 중증도의 자살위험군에게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학교생활 적응과 더 나아가 취업 후 사회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REFERENCES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6). *Annual Report on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
- [2] G. S. Kang. (2019, May). Literature Review for Mental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Conference symposium* (pp. 87-90). Seoul :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 [3] J. J. Kim. (2009). An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University Student's Suicidal Ideation -Regarding Effect of Suicidal Attempt Experience, Mental Health, *Psychosocial Problems-Mental Health & Social Work*, 32, 413-437.
- [4] S. Y. Ahn, J. H. Kim & B. Y. Choi. (2015). Meta-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2(3), 385-405. DOI : 10.16983/kjisp.2015.12.3.385
- [5] G. E. Gomez & E. A. Gomez. (1991). Depression in the elderly. *J Psych Nur*, 31(5), 28-33.
- [6] Y. H. Park. (2017). Effects of Dep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3(1), 111-116. DOI : 10.4094/chnr.2017.23.1.111
- [7] E. M. Ji & Y. C. Cho. (2014). The association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with depressive sympto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5), 2996-3006. DOI : 10.5762/KAIS.2014.15.5.2996
- [8] M. J. Hwang & Y. E. Jang. (2017). The Effect of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on Suicidal Ideation :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The*

- Journal of Social Science*. 24(1), 113-136.
- [9] K. J. Kim & N. W. Chung. (2019). Relationship among lif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 :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4(1), 249-271.
DOI : 10.17315/kjhp.2019.24.1.012
- [10] Y. R. Cho. (2007). Assessing Emotion Dysregulation: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4), 1015-1038.
DOI : 10.15842/kjcp.2007.26.4.012012
- [11] S. M. Ham & M. H. Hyun. (2018).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Traits and Disordered Eating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3(2), 505-523.
DOI : 10.17315/kjhp.2018.23.2.011
- [12] M. L. Park. (2017. 09. 11). *MEDICAL Observer*. 70% of adult ADHD patients with comorbidity experience. Monews [Online].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15>
- [13] H. L. RO & E. J. Shin. (2015). Relationship between prevalence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ymptoms and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3), 1937-1945.
DOI : 10.5762/KAIS.2015.16.3.1937
- [14] H. S. Kweon & S. G. Lee.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ADHD trait and Adjustment on Campu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8(2), 297-313.
DOI: 10.15703/kjc.18.2.201704.297
- [15] S. G. Lee. (2015). Relationship between Symptoms of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Self-Esteem, Life-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al Therapy*, 7, 193-208.
- [16] S. H. Choi & H. Y. Lee. (2014). Influence on College Students' Depression of Anxiety, Unemployment Stress, and Self-esteem-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619-627.
DOI: 10.5392/JKCA.2014.14.10.619
- [17] M. J. Park, J. H. Choi, E. Y. Lee & M. Y. Park. (2014). Effects of College Life Characteristics on Depression, Anxiety, and Somatic Symptoms among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 346-355.
DOI: 10.5392/JKCA.2014.14.01.346
- [18] S. G. Yoo & S. H. Jang.(2019). The Relationships among Smart Phone Addiction, Anxiety, Self-differentiation and Life Adjustment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4(1), 171-184.
DOI: 10.21097/ksw.2019.02.14.1.171
- [19] National Assembly Education Hope Forum,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National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2018. 5). College students' anxiety, are you all right? [Electronic materials] : *Support for Mental Health Crisis for Undergraduate Students: Continuous Planning of Universities (11-16)*. SEOUL: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 [20] D. Harwood & R. Jacoby. (2000). *Suicidal behavior among the elderly*. In K, Howton & K, van Heeringen (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275-291. Chichester: Wiley.
- [21] W. M. Reynolds. (1988). *SIQ,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22] K. R. Murphy & R. A. Barkely. (1995). Preliminary Normative Data on DSM-IV Criteria for Adults. *ADHD Report*, 3, 7-6.
- [23] E. J. Kim. (2003). The Validation of Korean Adult ADHD Scale (K-AADHD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4), 897-911.
DOI: 10.15842/kjcp.2009.28.4.009009
- [24] D. E. Nease & J. M. Malouin. (2003). Depression Screening: A Practical Strategy.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52(2), 118-26.
- [25] R. L. Spitzer, K. Kroenke, J. B. Williams & B. Lowe. (2006). A brief Measure for Assessing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the GAD-7.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6(10), 1092-1097.
DOI: 10.1001/archinte.166.10.1092
- [26] J. G. Seo & S. P. Park. (2015). Validation of the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GAD-7) and GAD-2 in patients with migraine. *The journal of headache and pain*, 16(1), 97.
DOI: 10.1186/s10194-015-0583-8
- [27] S. J. Alexander & A. G. Harrison. (2011). Cognitive Responses to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and their Relationship to ADHD Symptoms in First Year Psychology Students.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17(1), 29-37.
DOI: 10.1177/10870547111413071
- [28] C. M. Park, J. S. Lim, Y. M. Choi, J. H. Choi & S. H. Jo. (2017). Effects of Depression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Suicide Incidents in Psychiatric Patients and Health Control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56(2), 68-77.
DOI: 10.4306/jknpa.2017.56.2.68
- [29] N. Y. Kim et al. (2015). Suicidal Idea, ADHD,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and Impulsiveness with Soldier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8, 268-268.
DOI: 10.4172/2378-5756.1000314
- [30] E. J. Kim & G. W. Choi.(2012).The Relationships among Job-Seeking Anxiet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5, 351-352.
UCI: G704-SER000009889.2012.19.2.002

강 문 희(Moon-Hee Gang)

[장학원]



- 2005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박사
- 2010년 8월 ~ 현재: 충남대학교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학
- E-Mail : mhgang@cnu.ac.kr

김 선 희(Seon-Hee Kim)

[장학원]



- 2016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석사)
- 2017년 2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박사수료
- 2019년 9월 ~ 현재 : 조선간호대학 강의전담 교원
- 관심분야 : 정신 간호학, 자살

· E-Mail : sunny_kim@naver.com

오 은 진(Eun-jin Oh)

[장학원]



- 2018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 정신전문 간호사
- 관심분야 : 정신 간호학
- E-Mail : helloeunjin7@naver.com